

#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를 중심으로

이 두 희\*

## 【요약】

아리스토텔레스나 루키아노스의 역사 이해에 따르면 시(poetry)는 즐거움을 주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장르인 반면, 역사는 사건·진리의 보도를 통해 유익을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장르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루키아노스가 보기에, 역사가는 시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들을 역사 기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시(특히, 비극)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더하고,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꾀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 기록에 있어서, 비극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술 문체를 가리켜 폴뤼비오스는 ‘비극적 역사’라고 명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 문체의 한 특징에 속하는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희랍의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이 모티브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에 반영된 모습을 조사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가 상호 배타적으로 분리된 장르가 아니라 내러티브가 역사 기술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특히, 고대 역사 기술을 고대 내러티브와의 관계에서 살펴봄으로써 현대 문이론을 고대 역사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비극적 역사, 때늦은 깨달음, 고대 역사 기술, 내러티브, 헤로도토스

---

\* 장신대학교 신학과

## 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역사’와 ‘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그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두 장르가 재현하는 내용의 차이였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반면, 시는 ‘일어날법한 보편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아니면 산문을 쓰느냐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로도토스의 작품은 운문으로 고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율이 있든 없든 그것은 역시 일종의 역사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ta genomena)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일(hoia an genoito kai ta dynata kata to eikos e to anankaion)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51a 36- 1451b 4, 천병희 역).

2세기의 저술가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도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글에서 역사 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거기서 루키아노스는 역사 기술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실/진리의 전달이고, 그 목적은 유용성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재미와 아름다움의 요소에 대한 고려는 역사 기술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는 하나의 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유용성(to chresimon)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로부터만 도출된다(hoper ek tou alethous monou synagetai). 즐거움(to terpon)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동선수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더 좋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비록 경쟁자인 밀레토스의 알카에오스는 니코스트라토스에 의해 사랑 받는 잘 생긴 친구이긴 하지만, 이시도토스의 아들인 니코스트라토스가 - 그는 그의 두 경쟁자보다 더 푸르고 강하다 - ‘헤라클레스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사가 즐거움을 다루는 잘못을 범한다면 역사는 많은

애호가들을 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자신에게만 고유한 것, 즉 진리를 보도하는 것을 유지하는 한 아름다움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Lucian, *How to Write History*, 9, 필자 역)

루키아노스는 시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에나 어울리는 장식들을 역사에 도입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역사에 속하는 요소들과 시에 속하는 요소들(*ta historias kai ta poietikes*)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시의 장식물들—이야기(뮈토스), 송덕문, 이 둘의 과장—을 역사에 도용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거칠고 투박한 운동선수들 중 한 명에게 자주색 옷과 바람둥이 여자의 기타 장식물들로 치장하고 그의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Lucian, *How to Write History*, 8, 필자 역)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루키아노스 같은 이들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시와 역사는 엄연히 분명한 경계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역사의 가치와 의미는 그 내용의 진실성/사실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용성의 측면에서만 추구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은 레오폴드 폰 랑케에 의해 주창된 역사 실증주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 실증주의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는, 랑케 자신도 의식하고 있었듯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일어났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역사(history)’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독특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해석적 필터를 거쳐 그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역사기록(historiography)’이라는데 있다.<sup>1)</sup> 이러한 이유로 고대의 역사 기술을 통하여 그 당시의 사건(*bruta facta*)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현대의 역사가는 고대의 역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역사가의 해석과 그 가운데 포섭되어 있는 사건 자체를 역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sup>2)</sup>

1) 역사적인(historical) 중요성과 역사 기술적인(historiographical) 중요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onald Lateiner, "Pathos in Thucydides," *Antichthon* xi (1977), 45.

2) 이런 맥락에서 Kurt A. Raaflaub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국서양고전학회 2009년 가을 국제학술대회에서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사건의 객관적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는 역사가의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사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지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탐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위에서 제기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 역사 기술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차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역사 기록의 내용(what)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역사 기술의 방법(how)과 관계된 것이다. 채트먼은 그의 『이야기와 담론』에서 서사의 내용(story)과 서사의 방법(discourse)을 구분하여 서사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서사 텍스트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sup>3)</sup> 최근 그와 같은 서사이론(narratology)에 기반 하여 역사기술을 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름대로 역사 이해의 신선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영할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현대 서사이론에 기반 하여 고대의 역사 기술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그 발견적(heuristic) 가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질문을 피해가면 서도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를 연결하여 고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그 방편으로 ‘비극적 역사’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먼저 고대 역사 기술에서 발견되는 역사 기술 문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비극적 역사’의 정의를 시도하고, 이어서 고대 역사 기술에서 발견되는 ‘비극적 역사’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연구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관점(perspective)’ 혹은 ‘독특한 의도(intentions)’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 3) Seymour Chatman,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서울: 푸른사상, 2003), 19. 이야기와 담론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1449b 5-8)에서 mythos와 logos를 구분하고 있다: “The composition of plots (to de mythous poiein) originally came from Sicily; of Athenian poets Crates was the first to relinquish the iambic manner and to create stories and plots (poiein logous kai mythous) with an overall structure.” (trans. by Stephen Halliwell).

## II.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에 대한 기초적 이해

‘비극적 역사’라는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폴뤼비오스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폴뤼비오스는 그의 『역사』에서 클레오메네스 전쟁에 관한 필라르쿠스의 역사 기록을 강력히 비난하는 가운데 그의 행위를 역사 기술의 ‘비극화(tragōdōintes)’라고 꼬집고 있으며,<sup>4)</sup> 그와 같이 역사 기술을 ‘비극화한’ 역사가들을 ‘비극 시인과 같은 역사가(kataper hoi tragōdiographoi),’<sup>5)</sup> 즉 ‘비극적 역사가(Tragic Historian)’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필라르쿠스에 대한 폴뤼비오스의 비난에서 사용된 용례를 따르면 ‘비극적 역사’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비극 작품에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목적, 즉 즐거움을 주는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비극 작품에 고유한 내러티브 장치를 역사 기술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폴뤼비오스가 보기에 이러한 행위는 사건의 정확한 보도를 통한 진리의 전달을 통해 유익을 제공해야 하는 역사 기술 본연의 임무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시와 역사의 구분이나 폴뤼비오스에 의한 역사의 ‘비극화’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역사 기술에 있어서 ‘비극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 같다. 한때 ‘비극적 역사’는 그 기원에 있어서 헬레니즘 시대의 2급 역사가들에 의해 생겨난 일탈적 하위 장르로 치부된 적도 있었지만 월뱅크는 희랍-로마 역사 기술 전통의 시초부터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의해 활용되어온 역사 기술 문체의 하나임을 주장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가 ‘비극적 역사’의 기원 문제에 대한 토론에 중지부를 찍은 것으로 인정하는 듯하다.<sup>6)</sup>

필자는 월뱅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미 『서양고전학 연구』에서 ‘비극적 역사’

4) Polybius, *Histories* (VII. 1-2)

5) Polybius, *Histories* (II. 56-60)

6) F. W. Walbank, “History and Tragedy,” *Historia* 9 (1960), 216-234.

문체가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의 역사 기술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간략히 논한 바 있다. 거기에서 필자는 ‘비극적 역사’ 문체의 특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 전형적인 비극적 이야기 패턴의 하나인 ‘koros (포만) - hybris (오만) - atē (미망/파멸)’ 도식 2) ‘두 가지 어려운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 3)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비극적 아이러니’를 통한 ‘연민과 공포’의 유발 4) 생생한 세부 묘사(enargeia).<sup>7)</sup> 물론 이상의 특징들이 ‘비극적 역사’ 문체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극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특징에 더하여 ‘비극적 역사’ 문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때늦은 깨달음(ophsimatia)’ 모티브이다.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가 고대의 역사 기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희랍 비극의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 III. 희랍 비극에 나타난 ‘때늦은 깨달음(ophsimatia)’ 모티브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가 희랍 비극의 특징적인 이야기 패턴의 하나라는 점은 이 모티브가 3대 비극작가 모두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비극적 사건이 이미 발생한 연후에, 때 늦은 시점에서야 그 사건의 전모를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비극적 인물의 예로 가장 먼저 우리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범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이 비극적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발생한 후인 때 늦은 시점이었다.

7) 이두희, “역사자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47-76.

자신의 과오에 대한 오이디푸스의 무지는 그로 하여금 테바이의 재난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한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었는데 알갭게도 그 재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저주는 자신 위에 떨어지고 만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이디푸스는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아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나아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1182-1185, 천병희 역)

소포클레스의 크레온은 ‘때늦은 깨달음’의 사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비극적 인물이 라 할 수 있다. 『안티고네』에서 크레온은 테바이의 원수였다는 이유를 들어 폴뤼네이케스의 매장(burial)을 금지시킨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이러한 크레온의 국가적 명령에 저항하여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을 강행하기로 결심한다. 국가의 명에 따라 자신의 오빠인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법을 따라 국가의 명에 거역하여 자신의 오빠인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충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놓인 안티고네는 자연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그녀의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안티고네의 편을 들어 자기의 아버지 크레온과 ‘논쟁/아곤’을 벌인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크레온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안티고네를 산 채로 동굴로 된 무덤에 매장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안티고네가 동굴로 끌려 간 후에 맹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들어 와서 크레온에게 그의 불의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한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크레온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조언에 따르기를 거절한다. 화가 난 테이레시아스는 크레온이 피로 피 값을 치르게 되리라고 예언한다 (1064-1090행). 이런 불길한 예언에 겁이 난 크레온은 그제야 마음을 바꾸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하기 위해 몸소 달려 나간다. 그는 먼저 폴뤼네이케스의 시체를 잘 매장해 준다. 그리고는 안티고네를 생매장하도록 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간다. 거기로부터 크레온은 큰 통곡의 소리를 듣는다. 거기서 크레온은 목매달아 죽은 안티고네를 발견하게 되고 분노하여 자살하는

자신의 아들 하이몬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그렇게도 애절하게 간청되었던 크레온의 마음 바꾸기는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회한에 찬 목소리로 크레온은 다음과 같이 애곡한다:

크레온: 아아!  
분별없는 생각의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여!  
그대들은 보시구려,  
한 핏줄에서 나온 살해자와 피살자들!  
아아, 슬프도다, 불행한 내 결정이여!  
아아, 내 아들이, 이런 젊은 나이에,  
아아, 슬프고 슬프도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다니!  
네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자 코러스가 다음과 같이 맞받아 말한다:

코러스: 그대는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ophse) 깨달은 것 같소이다.

그러나 크레온의 깨달음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크레온: 아아!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불행을 통해 배웠소(mathōn).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신께서 엄청난 무게로 내 머리를  
내리치시며 나를 그릇된 길로 내동댕이쳤소.  
내 행복을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으시며.  
아아, 인간들의 힘들고 괴로운 노고여!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1261-76, 천병희 역)

그러는 사이, 그녀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자의 보도를 들은 (1192-1243행) 크레온의 아내 에우뤼디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자살을 하고 만다(1277행 이하). 때늦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크레온은 몇 겹의 비극적 재난을 겪었던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트라키스 여인들』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도 ‘때늦은 깨달음’ 모티프를 반영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sup>8)</sup> 그의 아내 데이아네이라가 보낸 독이 묻은 외투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한 신탁의 내용을 기억해낸다:

아아, 가여운 내 신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완전히 끝장났고, 내게 햇빛은 더 이상 없어.  
아아, 내가 어떤 불행을 당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1143-1145행)  
.....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들어라. 내 아들이라 불리는  
네가 이제는 어떤 남자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고도.  
전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예언하시기를,  
나는 살아 숨 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저승에 가서  
살고 있는 자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신탁의 말씀에 따라, 죽은 괴수인  
켄타우로스가 살아 있는 나를 죽였던 것이다 (1157-1163)  
(소포클레스, 『트라키스 여인들』, 천병희 역)

헤라클레스의 깨달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때 늦은 것이었다.

‘때늦은 깨달음’이라는 비극적 패턴은 소포클레스뿐만 아니라 아이스퀼로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아이스퀼로스의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에서 에테오클레스는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저주를 기억해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때 늦게도 폴뤼네이케스와 대결을 벌이는 시점에서였다:

에테오클레스: 오오, 신에 의해 현혹된, 신들의 큰 미움을 산,  
은통 눈물바다가 된, 우리 오이디푸스 가문이여!

8) C. C. Chiasson, "Herodotus' Use of Attic Tragedy in the Lydian Logos," *CA* 22 (2003), 26.

아아, 이제야 아버지의 저주가 실현되는구나.  
(아이스퀼로스,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 653-656, 천병희 역)

에우리피데스의 『힉폴리토스』에서 테세우스는 자기 아내 파이드라에 의해 남겨진 파괴적인 쪽지에 의해 분노하여 너무나 성급하게 무고한 자기 아들 힉폴리토스를 저주한다. 분노에 찬 테세우스는 힉폴리토스에게 추방을 명하고 죽음의 저주를 퍼붓는다:

테세우스: 아버지 포세이돈이여, 그대는 전에 내게 세 가지 소원을 약속하셨거늘, 그 중 하나로 내 아들을 죽이시어,  
그가 오늘을 넘기지 못하게 해 주소서,  
만약 그대가 내게 주셨던 소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887-890)

이와 같은 분노에 찬 명령에 대해 코러스장은 테세우스가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테세우스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한다:

코러스장:  
왕이여, 제발 그 소원을 취소하시고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비세요  
나중에 그대가 실수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내 말을 믿으세요!(891-892)

그러나 코러스장의 충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테세우스는 그것을 듣지 않고 힉폴리토스는 추방 길에 오른다. 그리고 사자는 힉폴리토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힉폴리토스에 대한 테세우스 자신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다. 사자의 보고 후에 아르테미스가 나타나서 힉폴리토스가 모든 고발 내용과 관련하여 얼마나 무고한지를 테세우스에게 설명한다. 이러한 아르테미스의 개입에 대해 테세우스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테세우스: 아아 슬프도다! (1313)  
아아, 여주인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1325)

비극적이게도 테세우스는 사건의 전모를 깨닫게 되지만 그것은 너무도 때늦은 시점에서였다. 테세우스의 미망이 힌폴리토스를 합당치 않은 죽음으로 내몰았다. 반면에 테세우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에서 면제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지중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아르테미스: 그대의 잘못에 관하여 말하자면,  
첫째, 그대가 모르고 저질렀던 만큼 거기에는 악의는 없었다. (1334-1335)

1449행에서 힌폴리토스도 그의 아버지의 살인을 용서해 준다.

#### IV. 헤로도토스의 『역사』 1권에 나오는 크로이소스 일화에 나타난 비극적 요소들

이상에서 우리는 ‘때늦은 깨달음’이라는 모티브가 희랍 비극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 일화를 살펴 보면서 이러한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가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다른 비극적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방식을 고찰해 볼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크로이소스를 아시아에 있는 “헬라스인들에게 조공을 강요한 최초의 비 헬라스인”으로 소개한다(1.6).<sup>9)</sup> 헤로도토스에 의한 크로이소스의 인물 묘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는 그의 『역사』에서 등장할 제국들의 왕들에 대한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10)</sup> 솔론과의 만남 장면으로 소개되기 시작하고 화장용 장작더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조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크로이소스의 일대기가 희랍 비극에서 나타나는 비극적 주인공의

9) 헤로도토스 『역사』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천병희 역을 따를 것이다.

10) J. A. S. Evans, “Individuals in Herodotus,” in *Herodotus, Explorer of the P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45. Henry R. Immerwahr, *Form and Thought in Herodotus* (Cleveland, Ohio: The Press of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6), 154-161.

특징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크로이소스가 솔론과 만나는 장면이 서술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구조상 암시적으로 비극적 패턴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sup>11)</sup>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솔론의 크로이소스 방문이 있었던 시점인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것은 ‘크로이소스가 이들 모두를 복속시켜 뤼디아 왕국에 합병하고, 사르데이스가 부와 번영의 절정에 있었던’ 때이다 (1.29).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분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솔론이 크로이소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ei tina ēde pantōn eides olbiōtaton) 질문을 받았을 때, 절정에 달했던 크로이소스의 부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솔론은 크로이소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솔론은 텔로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sup>12)</sup>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클레오비스와 비톤이라고 대답을 했다. 솔론은 행복(olbios)과 일시적인 부(plousios)를 구분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인생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주장 한다 (1.32).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지혜로운 솔론의 교훈을 수용하지 않고 그를 ‘아는 척하는 바보쯤’으로 여기며 냉담하게 떠나보낸다(1.33).

이어지는 아튀스/아드라스토스 일화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솔론이 떠나간 뒤 크로이소스에게 무서운 신벌이 내렸는데 아마도 그가

11) 이 에피소드의 구조 외에도, 크로이소스와 솔론의 만남은 연대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헤로도토스 자신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이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듯하다. 솔론의 시가 실제로 부요함이 제대로 된 정신을 결여하고 있는 인간에서서 휘브리스를 낳는다고 노래하였다는 사실은 기억할만하다. (Solon, Fragment 6; tiktei gar koros hybrin, hotan polys olbos epēhetai anthropois hopoulos mēnoos artios ē) cf. Douglas E. Gerber, *Greek Elegiac Poetry: From the Seventh to the Fifth Centuries B.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23. 이 사례는 역사와 시를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Hans Peter Stahl, “Learning through Suffering? Croesus’ Conversations in the History of Herodotus,” *Yale Classical Studies* 24 (1975), 3.

12) Immerwahr는 텔로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텔로스라는 이름은 아무도 인생의 끝(telos)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솔론의 주장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Immerwahr, 156-157.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던 탓인 듯하다. (1.34)<sup>13)</sup> 헤로도토스는 이와 같은 의도적 배치에 의해 아튀스의 비극적 죽음을 크로이소스의 ‘오만’과 연결시키고 있다. 두 에피소드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헤로도토스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던 한 인물의 행운이 어떻게 극적으로 역전되는지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비극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몰락의 원인이 현재적 번영으로 인해 눈이 가리어 지나치게 오만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sup>14)</sup>

아티카 비극의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구조 외에도 우리는 또한 크로이소스 일화에서 비극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아튀스/아드라스토스 일화는 많은 비극적 요소를 드러낸다. 1권의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비극적 요소는 ‘때늦은 깨달음’ 모티브이다.<sup>15)</sup> 크로이소스는 꿈에서 받은 경고로 인해 자기 아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염려한 나머지 꿈에서 경고한 비극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오히려 자기 아들의 비극적 운명을 돌이키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노력들이 그 재난의 운명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은인의 아들을 실수로 죽이게 되었던 또 다른 비극적 인물인 아드라스토스는 깊은 고통 중에 크로이소스에게 자신을 죽임으로써 벌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아드라스토스의 간청에 연민의 정을 느낀 크로이소스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다. 오히려 크로이소스는 어떤 신을 비난한다. 죽여 달라는 아드라스토스의 요청에 대한 크로이소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 헤로도토스는 비록 그것이 ‘때늦은’ 것이긴 했지만 인간 존재의 부서지기 쉬움(fragility)에 대한 크로이소스의 깨달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듯하다.

13) Stahl, 6.

14) Immerwahr, 160-161.

15) 크로이소스 외에도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유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몇 명 더 있다. 아스튀아게스 (1.129), 캄뷔세스에 의해 패배한 후의 프삼메니토스 (3.14), 그리고 캄뷔세스 (3.65). 참고. Immerwahr, 161.

그러나 키아손(Chiasson)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크로이소스의 문제는 단순히 깨달음의 ‘때늦음’만이 아니었다. 사르테이스의 최종적 몰락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크로이소스의 깨달음/배움은 또한 불완전한 것이었다.<sup>16)</sup> 크로이소스가 아드라스토스를 벌하지 않고 내보내면서 비난했던 것은 어떤 신이었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인간 존재의 부서지기 쉬움과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크로이소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해는 또 다른 음울한 경험을 통해 아직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험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재난과 관계된 것이다.

자기 아들이 죽은 지 2년 후,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를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먼저 크로이소스는 신탁이 자기의 계획에 호의적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는 신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을 얻는다: “만약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인들과 전쟁을 하면 대국을 멸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헬라스 국가를 찾아내어 동맹을 맺으라고 권고했다 (1.53).” 이 대답을 듣고 크로이소스는 ‘너무나 기뻐 (hyperēsthē)’ 자기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리라고 ‘과신하였다(pangchy elpisas)’ (1.54). 이러한 과신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신탁에 문의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질문의 내용은 ‘자신의 왕권이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고 (1.55) 질문의 동기는 신탁이 잘 맞힌다는 것을 알고 그 신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enephorecto autou)’이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노새가 메디아인들의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탁의 답변은 크로이소스가 보기에 적어도 눈먼 마음의 소유자인 크로이소스가 보기에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것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크로이소스가 보기에 노새가 메디아인들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탁의 답변은 자기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이 신탁으로부터 더욱 용기를 얻은 크로이소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감행하였다. 페르시아와 튀디아 사이의 전쟁이 끝나기 한 참 전에 헤로도토스는 신탁의 진정한

---

16) Chiasso, 12.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크로이소스에 대하여 간결하지만 중요한 논평을 제공한다 (1.71). 크로이소스는 사실 애매모호한 신탁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1.75). 아시아의 헬라스 섬들을 공격하려던 그를 만류하는 비아스의 현명한 충고를 따랐던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1.27) 이번에는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침략하지 말라는 산다니스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1.71).<sup>17)</sup> 산다니스가 충고했듯이 페르시아는 크로이소스를 이롭게 할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나라이므로 이기든 지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질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이소스는 헛되이 공격을 감행한다.

이리하여 전쟁은 시작된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전투는 너무나 치열하여 양 진영 모두 큰 손실을 입었다. 그의 군대가 페르시아인들의 군대보다 더 작은 것을 보고서 크로이소스는 당분간 사르데이스로 퇴각하기로 결정한다. 동맹군들의 도움을 얻어 더 큰 군대를 모을 생각이었다. 페르시아인들이 사르데이스로 밀고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크로이소스는 사르데이스에 돌아갔을 때 모든 용병들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퀴로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은 루디아인들을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았고 마침내 포위 공격을 통하여 루디아를 함락시켰다. 크로이소스의 성급한 용병 해산은 그를 재난(atē)으로 이끈 과도한 자신감(hybris)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는 사이에 크로이소스는 비록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신탁이 성취된다.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크로이소스를 막 내리치려는 순간 신탁의 예언대로 그의 병어리 아들이 난 생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신탁의 실현을 화상용 장작더미 위에 놓인 크로이소스 장면의 바로 앞에 배치함으로써

17) Stahl은 산다니스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크로이소스의 페르시아 침공과 아티스의 죽음 사이에서 병행관계를 찾아낸다. 산다니스는 가난한 페르시아를 이겨보았자 루디아에 유익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반면, 패배할 경우 엄청난 손실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대한 침공은 페르시아인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으면 꿈도 꾸어보지 않았을 페르시아인들의 침투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71).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예방적인 차원의 공격이라는 구실을 들어 (1.46)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감행한다. 알갭게도 그의 아들 아티스의 경우에서처럼, 크로이소스의 예방적 행동들은 자신의제국과 자기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참고. Stahl, 9-10.

헤로도토스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그러나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신탁, 즉 크로이소스의 조상인 귀게스에게 주어진 신탁을 (1.13) 상기해 내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듯하다. 사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신탁은 크로이소스의 몰락을 이미 4세대 전에 예언하였었다.<sup>18)</sup> 독자들과는 달리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는 그의 운명이 그의 조상 귀게스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를 깨닫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sup>19)</sup>

크로이소스는 이전에 주어진 신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 퀴로스에게 끌려가고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sup>20)</sup> 그의 생애의 이 마지막 순간에 크로이소스는 마침내 솔론이 앞서 말했던 바, 즉 어떠한 인간도 행복한 죽음을 맞기 전까지 행복하다고 불릴 수 없다는 말의 뜻을 깨닫게 된다. 크로이소스는 인간 운명의 부서지기 쉬움에 대한 이해에 마침내 도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너무나 때늦은’ 깨달음이었다. 그의 페르시아 침공 이전에 운명의 가변성에 대한 진실을 크로이소스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행하게도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크로이소스는 자신의 현재적 권력과 부에 눈이 어두워 신탁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볼 수가 없었고 산다니스의 현명한 충고를 듣기에 귀가 먹은 상태였었다.

솔론의 지혜에 담긴 진실을 깨닫는 순간 크로이소스는 고통 중에 한 숨을 내쉬며

18) 루디안 로고스의 광범한 맥락에서 볼 때, 귀게스-칸다올레스 에피소드는 메르므나다이 집안이 희랍 신화에 나오는 랍다코스 집안(the Labdacids)이나 아트레우스 집안(the Atreids)과 같이 저주 받은 집안임을 보여주는 기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Cf. Evans, 46. Stahl, 4.

19) 독자들과 등장인물 크로이소스 사이에 존재하는 앎/지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 아이러니에 주목해볼 만하다. 크로이소스는 그의 조상 귀게스에게 주어진 신탁을 알지 못하는 동안, 그의 행복과 행운을 자랑했다. 그러나 내레이터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헤로도토스의 독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크로이소스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헤로도토스의 역할은 비극에서 프로로고스의 역할과 비슷하다. 참고. Stahl, 6.

20) C. Segal, "Croesus on the Pyre: Herodotus and Bacchylides," *Wiener Studien* 84 (1971), 39-51. 시갈은 바킬리데스의 크로이소스 묘사와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 묘사를 비교하면서, 크로이소스가 바킬리데스에 의해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 것과 달리,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는 비극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가 있다.



어떤 소리를 발한다. 그것은 애처롭게도 다름 아닌 솔론의 이름이었다. 이것을 듣고 퀴로스는 그 소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궁금해져서 크로이소스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 묻기 시작한다.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이야기를 말해주기 전에 뜬말을 들인다. 마치 카산드라가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sup>21)</sup> 퀴로스가 계속해서 묻자 마침내 크로이소스는 솔론이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던 내용을 들려준다. 솔론에 관한 크로이소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된 퀴로스는 마음을 바꾸어 ‘자신도 한갓 인간이면서 자기 못지않게 행운을 누렸던 다른 인간을 산 채로 불태우려 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1.86).’ 퀴로스는 응보의 두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길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로부터 크로이소스를 구하기에는 때가 늦었다. 이 순간 아폴론 신이 폭풍 구름을 보내어 장작더미의 불을 끄고 크로이소스를 극적으로 구해낸다. 마치 희랍 비극에서 테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처럼,<sup>22)</sup> 이와 같은 플롯 전개로부터 비극에 특징적인 시간적 집중(the temporal concentration)에 주목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자포(Csapo)와 밀러(Miller)가 표현했듯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을 향한 플롯의 점진적인 전개/발전은 드라마에서 긴장감을 고양시키고 그것의 궁극적 해소를 통하여 즐거움을 제공한다.<sup>23)</sup>

지금까지 우리는 크로이소스의 두 번째 ‘때늦은 깨달음’의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로이소스의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그의 첫 번 ‘고난을 통한 깨달음 (pathēi mathos)’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된다. 크로이소스는 어떤 신을 비난하는데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아폴론을 비난한다. 자기가 보기에는

21) Chiasson, 26-27.

22) Segal, 47.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로이소스의 마지막 호소는 눈물로 아폴론 신을 부르는 것 이었다 (1.87). 시같은 “크로이소스의 기도를 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을 위하여 아껴둠으로써, 그리고 바킬리데스가 한 것처럼 크로이소스가 더 일찍이 신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헤로도토스는 크로이소스에게 깊은 영적인 권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하여 감정적 효과를 아껴두고 있다.”

23) Eric Csapo and Margaret Miller, “Democracy, Empire, and Art: Toward a Politics of Time and Narrative,” in *Democracy, Empire, and Arts in Fifth-Century Athens*, ed. Deborah Dickmann Boedeker and Kurt A. Raafaub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112.

지금의 사태가 신탁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탁에 의해 너무나 확신에 차서 페르시아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마음이 뒤틀린 크로이소스는 퀴로스의 허락을 얻어 델포이 신전에 파견대를 보내어 어떻게 신탁이 자신을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는지를 불평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묻게 한다. 여사제의 대답이 마침내 크로이소스로 하여금 신탁의 온전하고 참된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크로이소스는 그가 멸망시킬 제국이 어떤 제국이 있는지를 물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사제는 크로이소스에게 그가 불가능의 상징이라고 오해했던 노새는 섞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퀴로스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델포이로 보내졌던 사자들의 보고를 듣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재난의 원인을 신에게로 돌리고 있었던 크로이소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1.91).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때늦은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하여 크로이소스의 ‘때늦은 깨달음’ 이야기는 종결된다.

##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역사 기술 속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비극적 역사’ 문체의 이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희랍 비극의 전형적인 플롯 패턴 중의 하나인 “때늦은 깨달음 (oiphimatia)” 모티브가 3대 비극작가들의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극적 플롯 패턴이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 일화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때 이와 같이 비극에 고유한 플롯 패턴을 자신들의 역사 기술에 사용하여 비극 작품에 고유한 목적을 자신들의 역사 기술을 통하여 성취해 보고자 했던 역사기술 방식, 즉 ‘비극적 역사’ 문체를 저급한 역사가들의 일탈 행위의 결과로 보았던 때가 있었지만 위에서 살펴본바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 일화의 예가 보여주듯이, 기실 그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희랍-로마의 역사 기술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서부터 발견되는 효과적인 역사

기술 문체의 하나임을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폴뤼비오스, 루키아노스 등 계속해서 역사와 시를 구분하려는 이론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역사는 내러티브로부터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일까? 물론 역사는 시와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허구가 아닌 사실의 세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더욱 친착하고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비극화 현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역사 기술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논했던 2세기의 작가 루키아노스도, 비록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즐거움/미학의 요소가 역사 기술에 가미된다면 그것이 사실의 왜곡으로 이끌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알려진 장르의 구분은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낯선 개념이었고 그 경계를 나누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역사와 비극이 구분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역사와 비극은 상호 교류 불가능한 이질적 장르들은 아니었다. 때로는 역사가 시에 빛을 지기도 하고 반대로 때로는 시가 역사에 빛을 지기도 하였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비극의 장치를 빌어다 썼다면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자신의 비극의 소재로 역사적 사건을 빌어다 쓰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 역사 기술은 일찍이 내러티브와 긴밀한 관계에서 상호 교류하며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역사기술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 서사 이론을 고대의 역사 기술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둘 사이의 시공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고대 역사 기술의 서사적 연구는 고대 서사들에 기반 해서 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었을 고대 서사이론을 탐구하고 그것의 관점에서 연구함도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한 시도의 한 예로서 필자는 위에서 ‘비극적 역사’ 문체를 다루어 보았다. 앞으로 현대 서사이론과 고대 서사이론을 아우르면서 고대 역사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고대 역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려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 연구』 37, 2009.
- Aeschylus, 『아이스퀼로스 비극』,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8.
- Aristoteles, *Poetics*, trans. by Stephen Halliwell,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Chatman, Seymour,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푸른사상, 2003.
- Chiasson, C. C., “Herodotus’ Use of Attic Tragedy in the Lydian Logos.”, *CA* 22, 2003.
- Csapo, Eric, and Margaret Miller, “Democracy, Empire, and Art: Toward a Politics of Time and Narrative.”, in *Democracy, Empire, and Arts in Fifth-Century Athens*, ed. Deborah Dickmann Boedeker and Kurt A. Raaflaub,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Euripides, 『에우리피데스 비극』, 천병희 옮김, 단국대출판부, 1999.
- Evans, J.A.S., “Individuals in Herodotus.” in *Herodotus, Explorer of the P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Gerber, Douglas E., *Greek Elegiac Poetry: From the Seventh to the Fifth Centuries B.C.*,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Herodotus, 『역사』,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9.
- Immerwahr, Henry R., *Form and Thought in Herodotus*, The Press of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6.
- Lateiner, Donald, “Pathos in Thucydides.” *Antichthon* xi, 1977.
- Lucian, *How to Write History*, trans. by K. Kilburn,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Segal, C., “Croesus on the Pyre: Herodotus and Bacchylides.” *Wiener Studien* 84, 1971.
- Sophocles, 『소포클레스 비극』, 천병희 옮김, 단국대출판부, 1999.
- Stahl, Hans Peter, “Learning through Suffering? Croesus’ Conversations in the History of Herodotus.”, *Yale Classical Studies* 24, 1975.
- Walbank, F. W., “History and Tragedy.” *Historia* 9, 1960.

**【ABSTRACT】**

According to Aristotle and Lucianos, historiography is understood as a genre which aims to teach and benefit readers through the report of what really happened (*bruta facta*), while poetry aims to entertain readers. From the perspective of Aristotle and Lucianos, historians should not employ literary techniques belonging to poetr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ing readers. However, historians used to introduce literary motifs that belong to poetry (tragedy in particular) so that they may attract readers to their work and effectively communicate lessons from the event. Polybius called this technique of ancient historians ‘tragic history,’ which is a historiographical style. I already wrote a short paper on this subject, highlighting a few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is historiographical styl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another element of ‘tragic history’ style, that is, ‘*ophsimathia*(= late learning)’. I first explore several works by the representative Greek tragedians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focusing on ‘late learning’ motif of ‘tragic history’ style, and then try to explain how Herodotus employed this motif of ‘late learning’ in his historiograph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istoriography and narrative are not exclusively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rather are closely related. Particularly, attempting to read ancient historiography in relation to ancient narrative like Greek tragedy, this study attempts to show a way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problematic to apply modern literary criticism to ancient historiography.

**【Key Words】** tragic history, late learning, ancient historiography, narrative,  
Herodotus

논문 투고일: 2010. 01. 30

심사 완료일: 2010. 04. 10

게재 확정일: 2010. 04. 12